이베로아메리카 제8권 2호(2006)

남아메리카 이주의 추세와 특성: 칠레를 중심으로*

임 상 래

<Abstract>

La migración internacional en la América del Sur

En la actualidad se han dado varios cambios en la migración internacional de América del Sur, entre los cuales se destaca el caso de Chile.

De hecho Chile fue un país que incentivó la llegada de extranjeros principalmente del continente europeo. El motivo de la política pro-europeista de Chile era para no sólo colonizar las tierras del sur sino intentar "mejorar la raza". Sobre todo, los chilenos consideraban que la sangre indígena era inferior y impedía la modernización del país, por lo que llegaban a creer que mediante la recepción de los inmigrantes blancos o sea la desindianización demográfica pudiera lograrse el desarrollo nacional. Sin embargo entrando en la década de los setenta, Chile se ha convertido en un país emisor de población por varias causas, en gran medida de tono político. Entre las causas, las más representativas fueron el gople de estado pinochetista y la política autoritarista del régimen militar.

Pero durante los años noventa, el país experimentó una transformación en la composición de los stocks migratorios. La entrada masiva de los inmigrantes latinoamericanos y la disminución en el número de europeos proponen la posibilidad de que Chile sea el país receptor de inmigrantes. Especialmente los peruanos ingresan masivamente a Chile.

Referente a la inmigración peruana en Chile, vale mencionar el fenómeno de la feminización. Más peruanas residen que los peruanos en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sa nación y en su mayoría se dedican al servicio doméstico como ‘nanas’ o ‘asesores del hogar’. Asimismo, empieza a notarse el anti-inmigración o anti-extranjerismo en la sociedad chilena, con el aumento en el número de los extranjeros.

[Key Words: Immigration / International migration / Immigrant population / Peru / Chile]
[주제어: 이민 / 국제이주 / 이주인구 / 칠레 / 페루]

Ⅰ.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는 이주와 이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구상에는 현재 1억 7,500만 명 정도가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세계인구의 3%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35명중 한명이 이민자란 말과 같다.

라틴아메리카는 애초부터 이민의 대륙이었다. ‘인디오’의 아메리카는 라틴계 유럽인들이 들어오면서 ‘라틴’적인 아메리카로 변하였다. 유럽의 백인들이 신대륙에 들어오면서 원주민과의 혼혈, 추방, 몰살이 일어났고 이와 동시와 머나먼 아프리카에서도 다른 인종의 이주가 이루어졌다. 이로서 라틴아메리카는 백인, 인디오, 흑인 그리고 그들 간의 혼혈인 메스티소(mestizo 백인과 원주민), 물라토(mulato 백인과 흑인), 삼보(zambo 흑인과 원주민)가 총천연색의 인종 스펙트럼을 그려내는 대륙이 되었다.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인종간 혼혈과 다양성은 이 곳을 이주와 이민 연구의 ‘저수지’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특히 남아메리카 지역은 유럽적 아메리카(European-America)의 코노 수르와 원주민적 아메리카(Indo-America)의 안데스가 공존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 미국이나 유럽으로의 출이민 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 국가간의 역내이민도 매우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아메리카의 이주의 추세와 과정을 칠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이 지역에서 이민이 이민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와 관계를 갖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중남미 이민의 개괄적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미지역의 이민 규모와 동인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남아메리카 역내 이민의 중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칠레의 경우를 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구성과 칠레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아메리카에서 이주와 이민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칠레의 이민자 문제의 배경과 현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남아메리카의 국제 이민

라틴아메리카 이민의 역사는 대별해 보면, 독립이후부터 1930년대까지의 해외이민자의 시대, 이후 중남미 인접국간의 이민이 활발했던 역내 이주의 시대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다양한 이민 흐름이 나타나는 시기로 삼분할 수 있다(The Cambridge Encyclopedia 1992 ; Pellegrino 2003). 특히 8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이민 지형도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미국을 향한 역외이주의 증가였다.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흐름은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이 국가 안보와 대테러 전쟁을 명분으로 이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크게 위축되었으나 대신 스페인, 이태리, 일본, 호주 등으로의 이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그 동안 정체되었던 주변국가로의 역내이민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표 1〉 중남미 주요국 순이민율(1950-2000)

국 가	1950-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중남미평균	0.6	-0.3	-0.8	-0.9	-0.8	-1.1	-1.5	-1.4	-1.3	-0.9
아르헨티나	3.4	1.4	1.2	1.1	2.3	-1.6	0.6	0.8	0.7	0.7
브 라 질	1.9	0.0	0.0	0.0	0.0	0.0	0.0	0.0	0.0	0.0
칠 레	-1.3	-1.1	-0.8	-0.7	-1.6	-1.5	-1.0	-0.6	0.0	-0.7
코스타리카	0.0	0.0	0.0	0.0	0.0	2.5	2.5	1.7	3.8	6.9
멕 시 코	-1.4	-1.2	-1.5	-1.8	-2.7	-2.7	-3.4	-4.1	-3.7	-3.3
베네수엘라	6.0	4.9	0.6	0.5	5.8	5.5	-1.1	0.5	0.0	0.0

출처: Chackiel(2004, 77).

출이민과 입이민의 비교한 순이민율을 볼 때 현재 라틴아메리카는 해외로 떠나는 이민자가 더 많은 대륙이다. 1950년대부터 라틴아메리카에서 출이민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특히 정치-경제적 혼란이 심했던 70년대 후반부터 더 나은 삶을 찾아, 또는 사회적 안전을 좇아 많은 사람들이 라틴아메리카를 떠났다.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적인 수민국이었던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에서도 80년대 경제가 침체하고 석유 붐이 시들면서 받는 이민은 줄고 오히려 나가는 이민이 증가하였다.

현재는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등이 라틴아메리카의 주요한 역내이민국이라고 할 수 있다. 칠레는 임금이나 고용 기회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안정 등으로 남미의 새로운 수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멕시코는 미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많아 순이민국은 아니지만 미국으로 가려는 많은 중남미 이민자들이 몰려오는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이민국이며 아르헨티나도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시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는 80년대 이후 니카라과 등의 주변 중미국가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1990년 263 만 명이던 라틴아메리카의 총 이민자는 2000년 현재 약 310 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역내 이민자는 1990년 123 만, 2000년 169만 으로 전체 이민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Chackiel 2004, 73).

특히 남아메리카 이민의 중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칠레의 국제 이민과 주변의 남미국가간의 이민 관계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남아메리카에서의 역내 이민은 각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문화적으로 동질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간에 존재하는 성장과 발전의 격차로 인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표 2>에서처럼 이 지역은 일인당 소득이 일 만 달러가 넘는 나라들도 있는가 하면 그의 1/4에도 못 미치는 나라도 있으며, 평균수명도 10세 이상 차이가 나며, 문맹률이나 도시화율에서도 큰 격차를 보인다. 이와 같은 국가간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는 이민을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정치경제적 상황의 변화도 이 지역의 국제이주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의 역동성이나 정치 시스템의 변동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지역간・국가간 이동을 만들어 낸다. 또 인구이동은 각 국가의 노동시장 상황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자리와 일거리의 수요-공급 관계

〈표 2〉 코노 수르 국가 사회경제지표 2005

구 분	문맹률 2003	일인당생산 (달러) 2004	도시인구 율 1999	유아사망률 (천 명당)	평균 수명	출산율 (여성1인당)	인구 성장률	총인구 (백만)
아르헨티나	2.9	12,400	90	15.2	72.9	2.19	0.98	39.5
볼리비아	12.8	2,600	62	53.1	65.5	2.94	1.5	8.8
브 라 질	13.7	8,100	81	29.6	71.7	1.93	1.06	186
칠 레	3.8	10,700	85	8.8	76.6	2.02	0.97	15.9
파라과이	6.0	4,800	55	25.6	74.9	3.93	2.5	6.3
페 루	9.1	5,600		31.9	69.5	2.5	1.36	27.9
우루과이	2.0	14,500	91	11.9	76.1	1.91	0.47	3.4

출처: Texidó(2003, 7). *The World Fact Book*,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index.html

가 남아메리카 노동이주의 기본 성격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또 이민자 공동체가 이민국 사회에서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이민을 촉진시키고 본국과 이민국간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든다. 친분, 혈연, 지연 등으로 성립된 이주의 네트워크는 이민 흐름을 안정화시키고 수월하게 만든다(Texidó 2003, 9).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남아메리카의 이주와 이민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남아메리카 이민의 중심국은 아르헨티나였다. 스페인으로 독립한 이후 아르헨티나에서 "통치는 곧 식민이었다"(gobernar es poblar). 1800년대 후반 노예무역이 금지되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또 광대한 영토를 개척할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한 남미국가들은 유럽에서 이민자를 데려오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에 많은 이민자가 도착하였다. 인구는 크게 증가하여 아르헨티나의 경우, 총인구는 1869년 170 만 명, 1895년 390 만 명, 1914년 780 만으로 늘어났다. 당연히 총인구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 사이 크게 증가하였다. 1869년 12%였던 외국인 비율은 1895년에는 25%로 급증하였고 1914년에는 30%가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국민 3명중 한명이 이민자인 나라가 되었다. 이민자의 절반은 이태리 출신이었고 다음으로는 스페인 출신이 많았다. 이들은 주로 양을 목축하거나 목초와 밀농사를 지었고 1900년대에 들어서면 도시의

공장, 부두, 건설업의 노동자가 되었다. 도시에 거주하기 시작하여 1914년 이민자의 40% 정도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모여 살았다. 이민 1세대들은 오직 생존을 위해 노동하였으나 교육을 받은 2, 3 세대들은 법, 정치, 의약, 군인 등 전문직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아르헨티나의 발전과 중산층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Rodríguez 1992, 101-102).

유럽 이민에 이어 주변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였다. 기실 남아메리카의 역내이민은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촉발되었다. 1940년대 일기 시작한 오일 붐으로 베네수엘라에서는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게 되자 1960년대에 인접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베네수엘라로 이주하였다. 당시 콜롬비아 이민자의 절반 정도는 베네수엘라 국경지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쿠바와 에콰도르에서도 많은 이민자가 베네수엘라로 이주하였고 1970년대 베네수엘라의 해외 이민은 절정에 달했다. 비슷한 시기 인접한 남미 국가에서 아르헨티나에 많은 이민자가 들어왔다. 1970년대 브라질에서 7 만,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볼리비아 네 나라에서 총 14 만 명 정도가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였다. 특히 우루과이에서 아르헨티나로의 이주는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1950-1980년 사이 40 만 명 정도의 우루과이 사람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로 이주하였다. 이에 비하면 볼리비아 이민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약 백만 명 정도의 볼리비아 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다수는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외국인중 코노 수르 출신이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페루, 아시아, 동유럽 출신이다(The Cambridge Encyclopedia, 149 ; Texidó, 5).

아르헨티나와 함께 남아메리카 국제이민에서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나라는 칠레이다. 현재 칠레는 순이민국은 아니지만[1] 이 지역에서 이민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1992년 0.86%였던 외국인 비율은 2002년 1.2%로 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와 페루 등 주변국에서 이민자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군정이 끝나고 경제가 안정되면서 칠레로 돌아오는 귀국자도 늘고 있다. [2]

---

1) 공식 통계에 의하면 현재 칠레에는 약 180,000 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반면 해외에 거주하는 칠레인은 1990년 통계로 363,000 명(1970년 182,000, 1980년 370,00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칠레가 전통적인 이민국임을 보여주는 것이다.(Martínez Pizarro 2003, 17)

역사적으로 칠레는 유럽과 주변 국가로부터 이민을 받아왔다. 특히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오늘날 칠레 사회의 토대가 된 괄목할 만한 이민흐름이 있었다. 칠레에서 이민은 인구·경제 성장의 전략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독립 직후부터 칠레는 외국의 자본과 인적 자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남부지역의 식민화와 산업발전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목적으로 19세기말 정부 산하에 이민-식민화국을 설립하였고 유럽인들을 상대로 칠레 이민과 식민화사업을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이유로 칠레 이민자의 다수는 유럽계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주변국가에서 들어오는 이민이 늘기 시작했고 그래서 현재 칠레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남미국가출신이며 중미와 카리브를 포함하면 그 수는 약 72%에 달한다(Texidó 2003, 27).

남아메리카 이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노동이민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정치적 동기에 의한 난민이나 망명도 있지만 이는 소수이며 다수는 일자리와 일거리를 찾기 위한 이주이다. 즉 국경을 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생존과 생계를 위한 것이다. 남아메리카 이주의 또 다른 특징은 여성이민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물론 이는 국가별로 동일하지 않다.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출신의 이민자는 여성이 많은 반면 파라과이는 아직도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민자의 여성화 현상은 이미 이 지역에서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3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미 해외에 나가있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가족의 재결합도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Texidó 2003, 17).

Ⅲ. 칠레 이민의 특징과 추세

칠레는 북쪽으로는 사막, 서쪽으로는 태평양, 동쪽으로는 안데스 산맥, 남쪽으로는 남극에 갇혀있는 대륙의 섬과 같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외국인에 대해 폐쇄적인 성향을 보여 왔다. 이런 지

2) 1970, 80년대 군정을 피해 많은 칠레인들이 유럽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의 역이민이 늘고 있어 유럽계 이민자의 약 40%가 60세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조사되었다.(Texidó 2003, 29)

리적 격리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정책도 차별적인 측면이 있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초기 이민정책은 백인화를 지향하였고 이는 19-20 세기에도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 백인들이 주로 칠레로 이주하였고 이들은 칠레의 문화, 기술, 종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Doña 2004).

칠레의 이민 정책은 매우 선별적이었다. 1824년 칠레 정부는 스위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칠레에 공장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할 이민자를 모집하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1853년에는 식민도시 푸에르토 몬트가 건설되었고 주변지역으로 유럽 이민자 특히 독일 식민자들이 정착하였다. 1851-1860년 사이 독일계 이민자 3,000 여명이 발디비아와 양키우 지역에 정착하였다.(강석영 2003, 190) 1882년 정부는 이민자에게 미경작지를 제공하는 법을 제정하고 파리에 이민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이는 국경과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식민정책의 일환이었다. 이 결과로 1883-1895년 동안 31,000 명의 북유럽인이 칠레 남부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1900년대 초에는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이 안토파카스타와 마젤란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선별적 이민정책의 결과로 1865년 - 1920년 사이 칠레에 온 이민자의 52.5%가 유럽인이었다.[3](Doña 2004) 칠레를 유럽처럼 근대화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이민은 환영받지 못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와 비교할 때 칠레의 유럽이민은 양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었다. 1889-1914년 사이 칠레에 온 이민자는 겨우 55,000 명 정도였다. 그러나 당시 유럽이민자들은 상업회사의 1/3(1907), 고가 부동산의 20%(1908), 전체 산업 시설의 49%(1914)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1960년대 수도인 산티아고의 산업시설의 3/4 정도가 이들 소유였다. 유럽 이민자들은 농촌이나 도시의 노동자가 되기보다는 상부중산층(upper middle class)을 형성하였고 일부는 지배계급과 결혼을 통해 연합하기도 하였다. 메스티소나 원주민과의 인종간 혼혈은 거의 없었다. 지역적으로 유럽이민자들은 주로 안토파가스타, 산티아고, 발파라이소와 같은 광산지역에 정착했으나 독일계 이민자는 남부 농업지역에 많았다(Loveman 2001, 50).

당시 칠레의 유럽이민은 남미의 주변 국가들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이한

3) 1885년 중남미 출신 이민자가 크게 증가하여 그 비율이 67.2%가 되었는데 이는 1879-1893년 태평양 전쟁으로 볼리비아, 페루의 일부 영토가 칠레로 편입되었기 때문이었다.

성격을 갖는다. 우선 칠레는 이민을 받아들여 식민화 정책을 성공시킨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서도 이민자를 받아들여 이들로 하여금 토지를 개간하여 식민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시도했으나 대개 이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나오거나 아니면 대지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칠레에서는 농업을 중심으로 독일계 이민자들이 남부지역을 식민화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The Cambridge Encyclopedia, 144). 또 아르헨티나 등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 유럽 이민자들은 새로운 사회사상을 전파하고 노동계급을 형성하는 중심세력이 되었으나 칠레의 상황은 이와는 달랐다. 1914년 아르헨티나에서 이민자는 농촌 노동력의 40%, 도시 노동력의 60%를 차지했지만 칠레는 1907년 1% 와 4% 정도일 뿐이었다. 아르헨티나는 1902년 거주민법을 만들어 사회-정치 질서의 급격한 변동을 선동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추방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나 칠레정부는 1917년에서야 주민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칠레에서 유럽 이민자는 수적으로도 많지 않았고 또 기존 사회체제에 도전적인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Loveman 2001, 167).

〈표 3〉 칠레 외국인 인구 변화 추이(1865-2002)

연도	총인구 (천명)	외국인인구 (천명)	외국인인구/ 총인구(%)	지역별외국인인구/총외국인인구(%)		
				유럽	중남미	기타 지역
1865	1,819	22	1.21	53.7	41.4	4.9
1875	2,075	25	1.21	62.3	33.0	4.7
1885	2,057	87	4.23	30.1	67.2	2.7
1895	2,695	79	2.93	55.4	41.8	2.8
1907	3,231	132	4.09	53.3	42.7	4.0
1920	3,731	114	3.06	59.9	31.2	8.9
1930	4,287	105	2.46	60.0	24.6	15.4
1940	5,023	107	2.14	67.2	21.7	11.1
1952	5,932	103	1.75	55.9	23.4	20.7
1960	7,374	104	1.42	60.9	26.1	13.0
1970	8,884	90	1.02	53.3	34.4	12.3
1982	11,275	84	0.75	31.8	54.5	13.7
1992	13,348	114	0.86	20.1	65.1	14.8
2002	15,116	184	1.22	17.2	71.8	11.0

출처: Doña(2004. 2) 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Profiles/display.cfm?id=199

1차 대전 이후 칠레에서 백인 위주의 이민 정책은 없어졌지만 전쟁 이후 난민들이 몰려드는 것을 경계하여 외국인 입국에 대한 통제는 더 엄격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2차 대전 이후 더욱 확대되어 재정보증 조건이나 친인척 초정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로서 190-60년대 칠레의 해외 이민 유입은 감소-정체되었다(Doña 2004).

1970년대는 칠레 이민사의 획기적인 시기였다. 1973년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피노체트 정부가 수립되었다. 많은 칠레인들이 군정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그리고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갖기 위해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베네수엘라, 스웨덴 등으로 난민 자격을 얻어 이민하였다. 군부 통치 기간 약 50 만 명의 칠레인들이 스스로 조국을 떠났다. 동시에 이 기간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이민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1973년 - 1990년 군정기간 칠레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물론 군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범주 내에서 자본을 소유하고 교육을 받은 외국인의 입국은 허용하였다. 이 결과로 역내국가 이민자가 점증하였다. 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대만 한국 등 아시아계 이민자도 군사정부의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에 힘입어 칠레로 이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기간 이민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왜냐면 군사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는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피노체트 정권은 정권안보를 고려하여 이민자나 외국인을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외부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Doña 2004). 1982년 칠레의 외국인 비율은 칠레 역사상 사상 최저인 0.75%를 기록하였다.

1980년대 이후 칠레 이민은 큰 변화들을 겪었다. 하나는 1988년 국민투표에서 피노체트가 이끄는 군정이 패배함으로서 정치 탄압을 피해 망명하였던 많은 칠레인들이 귀국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칠레의 경제사회적 안정과 주변국의 위기로 인해 칠레는 남아메리카의 중요한 이민대상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기 침제와 페루와 볼리비아의 정치적 불안정이 칠레로의 이민을 증가시킨 요인이 되었다.

또 다른 변화는 새로 들어선 민간 정부들이 이전보다 더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이 증가하자 기독교민주당의 프레이 정부는 1998년 새로운 이민법을 시행하였다. 이는 불법이주자에게 1년 기간의 임시 비자를 주는 것인데 이로서 17,000 여 명의 페루인과 2,100 여 명의 볼리비아인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획득하였다(Doña 2004). 이러한 변화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칠레내의 외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안데스 주변국에서 칠레로의 이주는 칠레의 경제-사회적 안정이 지속된다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4〉 칠레 상위 10 개국 및 지역별 이민자 통계(2002)

출신국가	숫자	총외국인 대비율	남성비율	증감률 1992-2002	15세이하인구 비율
아르헨티나	48176	26.12	1	39.99	31.12
페 루	37860	20.52	0.66	394.97	9.00
볼리비아	10919	5.92	0.84	41.27	9.96
에콰도르	9393	5.09	0.83	314.34	19.54
에스파냐	9084	4.92	1.07	-7.77	8.42
미 국	7753	4.20	1.23	24.07	27.29
브 라 질	6895	3.74	0.85	49.57	22.87
독 일	5473	2.97	0.95	-2.32	10.03
베네수엘라	4338	2.35	0.94	80.98	23.33
콜롬비아	4095	2.22	0.82	145.80	13.77
지역별 통계					
남아메리카	125161	67.85	0.84	98.51	20.10
북아메리카	11295	6.12	1.17	37.19	27.18
중앙아메리카	5782	3.13	1.02	112.03	12.11
유 럽	31780	17.23	1.05	-1.22	12.37
아 시 아	7735	4.19	1.26	16.91	9.02
아프리카	1302	0.71	0.98	66.92	9.91
오세아니아	1409	0.76	0.90	48	23.07
총외국인	184464	100	0.91	60.97	18.44

출처: Martínez Pizarro(2003, 32).

2002년 현재 칠레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출

신국(출생국)별로 보면, 아르헨티나 26%, 페루 21%, 볼리비아 6%, 에콰도르 5%, 기타 42%로 남미국가가 다수이며 유럽인은 17%, 아시아계는 4%정도이다.

이민자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외국인의 61%가 산티아고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 페루나 에콰도르 출신은 각 각 78%, 67%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 출신은 46%, 볼리비아인은 단지 24% 만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볼리비아 출신은 46%는 볼리비아와 인접한 칠레 북부 타라파카 지역에 거주한다. 이민자들의 생업으로는 장사나 가사노동이 주를 이루는데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출신은 상업에, 페루와 에콰도르 출신은 가사노동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페루의 경우, 가사 서비스에서 일하는 사람이 43%에 달한다(Martínez Pizarro 2003, 38, 44). 이처럼 칠레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은 출신국가별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칠레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남녀 성비를 보면 남성이 0.91명으로 여자가 더 많고 페루 이민자의 경우에는 0.66으로 여자가 훨씬 더 많다. 이는 칠레뿐만이 아니라 남아메리카 전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연령대를 보면, 페루와 볼리비아 이민자가 미성년인구비율이 적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민자들이 다수가 노동을 해야 하는 성인이기 때문이다.

Ⅳ. 칠레의 페루이민

1. 사회인구학적 특성

2002년 통계에 의하면 현재 칠레내의 페루인은 37,860명이나 불법이민자까지를 포함시키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다. 자료의 부재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칠레에는 44,000 - 65,000 정도의 페루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4)]

4) 연구마다 차이가 난다. Bazo는 페루 이민자 숫자를 65,000, Stefoni 60,000, 칠레노동연맹은 44,000명으로 보고 있다.(Bazo Pacheco 2004, 1 ; Stefoni 2002b, 117 ; Documento de Trabajo 2004, 4)

<표 5> 칠레 출생국별 외국인 인구 변화 추이(1982-2002)

출생국	연도		
	1982	1992	2002
아르헨티나	19,733	34,415	48,176
볼리비아	6,298	7,729	10,919
브 라 질	2,076	4,610	6,895
에콰도르	1,215	2,267	9,393
페 루	**4,308**	**7,649**	**37,860**
베네수엘라	942	2,397	4,338
미 국	4,667	6,249	7,753
독 일	6,125	5,603	5,473
스 페 인	12,290	9,879	9,084
이 태 리	5,697	4,451	3,927
한 국	585	1,065	1,121

출처: Doña(2004. 2) 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Profiles/display.cfm?id=199

페루 이민의 가장 큰 특징은 90년대 이후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1992년에서 2002년 사이 페루이민자는 무려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페루 이민이 급증한 것은 칠레와 페루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언어나 종교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주를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살펴본 바와 같이 칠레에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규제가 완화되고 또 페루 국내의 정치-경제 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산티아고 시내의 아르마스 광장은 일요일마다 휴가를 나온 페루이민자들로 북적인다. 이들은 이곳에서 일자리와 생활 정보를 교환하고 고향 소식을 주고받는다. 이름하여 '아르마스 네크워크'라는 이민 '연줄'은 새로운 이민자를 불러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페루 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성인인구가 많고 특정 지역에 집중 거주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페루 이민자의 15세 이하 인구 비율은 9%로서 이는 다른 이민자 집단과 비교할 때 기혼자들이 자녀를 고국에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는 페루이민이 생계를 위한 노동이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페루 이민자들은 특정지역에 집중하여 거주하는데 수도권 지역에 무려 78%(북부 지역 12%)의 페루인이 모여 살고 있다(Bazo Pacheco 2004, 2). 산티아고에서는 인데펜덴시아, 레콜레

타, 센트랄 역, 플라사 브라질 지역에 집중 거주하는데 이 곳은 구 도심지로서 한때 일자리를 찾는 가난한 칠레인들이 거주하던 곳이다. 이들은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한달에 3-4만 페소 하는 피에사(pieza) 라고 하는 일종의 쪽방에서 함께 거주한다.

페루 이민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또 여성이 먼저 이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남성들이 먼저 이주를 하고 여성이 그 뒤를 따른다는 일반론과는 다른 것이다. 페루 이민자들은 주로 페루의 북부해안 지역출신이 많고 학력은 높은 편이다. 이들의 24%가 대학교육을 받았고 59%가 중등교육을 이수하였다. 페루 여성들이 페루에서 가졌던 직업은 사무직(15%), 가정주부(14%), 기술직(11%), 전문직(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루 남성들은 기술(16%), 단순노동(15%), 사무(9%), 전문(8%)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학력과 경력은 칠레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표 6>처럼 페루이민자는 가사, 서비스, 비공식 상업 분야에서 일하며 특히 여성이민자의 72%는 가사노동에 종사한다. 이민자의 2/3정도가 자녀가 있으며 이들 중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경우는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80%는 자녀들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ocumento de Trabajo 2004, 6 ; Stefoni 2002b, 118).

〈표 6〉 페루 이민자 종사 직종

순위	남 성		여 성		계	
	1992	2002	1992	2002	1992	2002
1	상업31%	서비스27%	서비스28%	가사72%	상업29%	가사43%
2	서비스	상 업	상 업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3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상 업	제조업	상 업
4	금 융	건 축	가 사	제조업	금 융	제조업

출처: Martínez Pizarro(2003, 45).

페루 이민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칠레내에 페루 여성 이민자를 위한 노동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칠레에서 가사노동은 천한 직업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래서 주로 남부의 원주민 여성들이 담당해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신장되고 가사노동자의 임금, 모성권, 휴식시간 명시, 노동계약, 휴일 지

정 등 노동조건이 크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집주인과 가정부간에는 이전과 같이 지시와 명령의 수직적 관계가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다 가사노동을 하려는 내국인이 적어지면서 예전처럼 묵묵히 일만 하는 칠레인 가정부를 구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다(Stefoni 2002b, 135-136). 그래서 '가정부' 정신이 약한 내국인을 대신하여 페루 여성 이민자들이 이 자리를 메우게 되었다.

또 비자를 받는데도 여성이 유리하다. 단기 거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집주인의 고용 계약서만만으로도 가사노동자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Stefoni 2002b, 126).

가사노동이 이민 초기의 여성 이민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가정 노동은 숙식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지출을 줄여 돈을 모을 수 있으며, 어느 정도 고용의 안정이 있으며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현재 페루 여성들은 칠레 사회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페루 여성 이민자는 가정부뿐만 아니라 보조교사, 간호원, 요리사로 인기가 높기 때문에 페루 여성이 가정부 일자리를 얻은 것은 어렵지 않다.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노동자를 칠레에서는 nanas(여자 아이, 가정부란 의미) 또는 asesor del hogar(가정 도우미)라고 하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하나는 출퇴근하면서 가사일을 하는 일종의 파출부인 'puerta afuera'(문 밖이란 의미)가 있고 입주 가정부라고 할 수 있는 'puerta adentro'(실내란 의미)가 있다.

전체 페루 여성 가사노동의 61%가 입주가사노동자이다. 이들은 1주(또는 2주)에 한 번 씩 휴일을 갖으며 월급은 약 12-16만 페소이다. 대부분이 기혼자이며 입주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들의 일터인 저택의 대부분이 대중 교통편이 닿지 않는 주택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휴일에도 집안에 갇혀있는 경우도 많다.[5]

5) 2006. 1월 기준(달러당 약 650페소) 180-250 달러 남짓한 액수이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Martínez Pizarro(2003, 46); Ardito Vega(2001)을 참조할 것.

2. 반이민과 차별

페루 이민자가 급증하고, 칠레가 남미의 새로운 수민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나면서 칠레내에 반이민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민자가 늘어난 90년대 이후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이민자의 '물결'이니 '침공'이니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였고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페루 이민이 급증하면서 이민자들 때문에 실업문제가 악화되고 임금이 하락한다는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은 공교롭게도 1998년 칠레의 경제위기와 실업문제가 심각해진 시기와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이민자가 급증할 때 내국인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동을 우려하거나 이들에 대해 경계심 또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런 현상은 코스타리카에서 니카라과 이민자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나타난 바도 있었다. 칠레에서도 이민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이민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민자에 대한 차별/착취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페루이민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어 고용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미성년자까지 포함하여 약 65,000명의 페루인이 있다 해도 이는 칠레 경제활동인구의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노동시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고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6] 게다가 페루 여성 이민자의 대부분은 칠레 여성들이 기피하는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칠레에서 페루이민이 고용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두 번째 주장은 페루 이민자들이 칠레의 교육과 보건 등 복지 서비스를 '낭비'하여 국가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다수의 페루 이민자들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내국인보다 복지 서비스를 덜 받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이들은 오히려 지출이 아니라 수입이다(Carolina Stefoni 2002a). 따라서 페루이민을 제한해야 한다는 두 가지 논리는 과학적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

6) 이민 인구가 급증했다 하지만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1% 남짓이다. 아르헨티나 4%, 코스타리카 8%, 파라과이 4%, 베네수엘라 4%, 미국 10%, 캐나다 18% 비교할 때도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인구학적으로 칠레의 이민자들은 노동시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Martínez Pizarro 2003, 23)

페루 이민자에 대한 차별 문제는 우선 노동과 연관이 깊다. 이들은 칠레 노동계층의 가장 하층부에 편입된다. 이들 중 다수가 가사노동이나 행상 등 비공식 부문에 참여하고 있으며 당연히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Texidó 2003, 112). 특히 불법이주자에 대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과 같은 노동착취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칠레내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민자와 관련된 범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민자에 대한 사회보장이 부재하고 빈곤이 심화될수록 생계형 범죄는 늘어나게 되며 또 밀입국을 알선하는 범죄조직도 생겨나게 된다. 이외에도 공항이나 국경에서 페루인이 받는 차별적 대우가 기사화되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공항 이민국 직원들이 페루사람들에게 체재비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소한 이유로 강제 출국당하는 일이 생겨 국가간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Ardito Vega 2001).

반이민 정서의 확산과 관련하여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감의 정도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사실 칠레인들은 자신들이 문화-인종적으로 주변국가보다 더 단일-동질적이라고 여기며 이러한 국민 의식이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스스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www.chile.com, 2002/9/9).[7] 또 국가형성의 역사를 보면 칠레는 페루, 볼리비아 등의 주변국과의 국경 분쟁을 겪었고 또 이를 통해 국경을 확대해왔다. 따라서 칠레 사람들은 주변국과 주변국 국민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편이다. 칠레의 반외국인 정서 또는 차별은 여기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칠레인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 조사에 의하면 이민자 차별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 남부는 아르헨티나 이민자가 다수이고 중부는 페루인이 많고 북부는 페루와 볼리비아 이주민이 많다. 칠레에서 아르헨티나 이민자는 경제사회적으로 칠레 사회에 기여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페루와 볼리비아 이민자는 칠레 경제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남부지역에서는 이민자에 비교적 우호적이지만 중부와 북부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같은 이유로 칠레 남부에서 부모의 국

7) 최근 조사에 의하면 칠레 어린이의 46%가 페루와 볼리비아 등 주변국이 자국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칠레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http://www.chile.com, 2004/11/23)

적이 다른 양국적 가정은 자연스럽게 받아드려진다(Informe Sintesis 2002, 8-9).

칠레인들의 집단 상상력에 자리 잡고 있는 'nanas peruanas'(페루 가정부)는 이미지 고착(stigmatization)의 전형이다. 페루 여성 이민자의 가사노동 집중은 "페루 여자들은 가정부로 적합하다"는 인식, 시각, 관념을 고착시킨다. 노동의 고착화가 사회문화적 표현과 편견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런 것은 언론을 통해 음주, 빈곤, 불법 등의 이미지와 함께 확대 재생산된다. 문화-사회적 이미지의 고착화는 "페루 여성에게 맞는 일은 가사노동이며 남성들에게는 건축 막일이 십상이다"라는 식으로 확대되어 노동의 고착화는 더 강화된다. 이런 것들은 이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Stefoni 2002b, 139-140) 이는 노동과 문화간의 일련의 악순환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페루 이민자가 몰려온다는 뉴스는 이민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진 노동자가 아닌 동정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취급하게 만들기도 한다. 여기에다 정착 초기에 어쩔 수 없이 임시로 또는 돈을 모으기 위해 여러 명의 이민자들이 방 한 칸에서 먹고, 자고, 요리하는 것이 마치 이들의 열등한 생활방식인양 여기게 만든다(Bazo Pacheco 2004, 4).

페루여성의 가사노동 집중은 인종 차별과 관련하여 또 다른 시각에서 고찰할 수 있다. 칠레 여성들이 기피하는 가사노동은 외국인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볼리비아 이민 노동력은 주로 북부지역과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 이민자도 있지만 이들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이민 온 도시 중산층 출신이 많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종사하길 원치 않는다. 또 아직까지 일부 칠레인들은 아르헨티나를 남미의 중심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은 아르헨티나 여성을 하인처럼 부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반면 많은 칠레 사람들이 칠레가 역사적으로 페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페루사람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사람보다 다루기 쉬운 상대로 여긴다. 여기에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Ortega 2003).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칠레인들은 페루여성 가정부를 더 선호한다. 따라서 가사노동은 출신국에 대한 칠레인의 차별적 시각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맺는 말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남아메리카에서는 복합적인 동기와 원인으로 이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흐름도 미국, 유럽, 주변국 등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아메리카의 이민의 최근 추세와 성격을 칠레를 중심으로 개괄해보면 몇 가지 두드러지는 변화와 시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남아메리카 이민 지형도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바로 칠레가 수민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칠레는 아직 출이민국이다. 칠레에 사는 외국인보다 더 많은 칠레 사람들이 외국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는 현재 많은 남미 국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민 대상국이며 아마 앞으로도 주변국으로부터 계속해서 많은 이민을 받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스페인, 이태리 등 전통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이민을 많이 받던 나라들이 외국인에 대해 국경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민 희망자들은 이 나라들을 대신하여 입국이 비교적 수월하고 일자리의 기회가 있는 칠레 같은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또 칠레 경제의 역동성과 정치적 안정으로 인해 국경을 접하고 있는 페루 등의 주변국에서 더 많은 이민자들이 칠레로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루 이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과 이들의 다수는 가사노동에 종사한다는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페루이민에서 가사노동이 갖는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페루 여성 이민자는 가정노동, 보조교사, 간호원, 요리사로 칠레에서 인기가 높으나 이중 입주 가사노동의 노동조건은 열악한 편이다. 특히 주인집에서 숙식을 함께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제약이 많을 뿐만 아니라 휴식과 노동의 구분이 불명확한 조건에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는 젊은 남성들의 영역으로 간주되어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페루이민에서 여성이 더 많다는 사실은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 여성의 이민이 늘어나면 자녀 양육이나 가정 내 역할 등 가족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페루 여성 이민과 가사노동의 초국가적 네크워크간의 관계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 날 칠레에서 육아와 가사를 싼 임금 노동에 기초한 국제 분업 메커니즘이 담당하고 있다는 문제는

검토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Stefoni 2002 b, 123). 칠레의 페루 이민은 여성이 저개발국에서 개발된 국가로 이주할 때 나타나는 이민과 노동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아메리카 이민 지형도에서 새롭게 또는 이전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경계이다. 이민자는 원천적으로 약한 존재이다. 왜냐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왔다는 사실 자체로 뿐만 아니라 이민국에 정착하기 위해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외국인이란 사실 자체로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부모는 일터에서, 자녀는 학교에서 차별받기도 하며, 국가 행정 서비스를 받는데도 제약을 받으며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이민자에 대한 차별, 반감, 경계, 혐오감, 두려움 등은 특히 이민자 집단이 급증하는 경우에 더 커진다.

칠레의 페루 이민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페루의 이출요인(push factor)과 칠레의 이입요인(pull factor)으로 인해 페루인의 칠레 이민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자 칠레 사회에서 페루인에 대해 경계와 두려움이 증가하였다. 일부에서는 노골적으로 페루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 문제 등을 야기한다면서 반외국인 정서와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으로도 설득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칠레인들이 군부독재의 탄압을 피해, 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했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칠레에서 외국이민자로 인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페루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민을 제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민권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를 먼저 제기하여야 한다. 이민자의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제대로 실행되어야 하며, 본국과 이민국이 협력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권리가 함께 고려되는 통합적 이민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물이 자연계의 원동력인 것처럼 이주는 인류 역사의 자양분임을 이민자와 내국인 모두는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라틴아메리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보편적 사실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참고문헌

강석영(2003), 칠레사, 한국외대출판부.

Ardito Vega, Wilfredo(2001), "Peruanos en Chile: Buscando una nueva oportunidad", *Ideele*, No.149, Lima.

Bazo Pacheco, Francisco(2004), "La visión desde los migrantes", Encuentro Perú-Chile El desafío de la solidaridad: Los migrantes peruanos en Chile, Lima.

CIA, *The World Fact Book*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index.html

Central Autónoma de Trabajadores de Chile(2004), Documento de Trabajo, El desafío de la Solidaridad, Santiago.

Collier, Simon et. al.(editors), (1992)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tin America and the Carribe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ckiel, Juan(2004), *La dinámica demográfica en América Latina*, Santiago: CEPAL.

Doña, Ciristían & Amanda Levinson(2004), Country Profile, Chile: Moving Towards a Migration Policy,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Profiles/display.cfm?id=199

Indicadores demográficos seleccionados para fechas censales. Total del país(1869-2001),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s http://www.indec.mecon.gov.ar

Loveman, Brian(2001), *Chile the legacy of Hispanic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artínez Pizarro, Jorge(2003), *El encanto de los datos. Sociodemografía de la inmigración en Chile según el censo de 2002*, Santiago: CEPAL.

Organización Internacional para las Migraciones(OIM)(2002), *Informe Sintesis Estudio Exploratorio Diagnóstico y Percepción sobre la Migración Limítrofe/Fronteriza en Chile, Santiago.*

Ortega, Soledad(2003), Mujer, inmigrantes y peruana, *MUJER HOY*,

2003/8/19, http://www.mujereshoy.com/secciones/1140.shtml
Pellegrino, Adela(2003), *La migración internacional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tendencias y perfiles de los migrantes*, Santiago: CEPAL.
Rodríguez Collazo, Angel & Josefa Santiago Caraballo(colaboradores)(1992), *América Latina Tierra de Contrastes*, Puerto Rico: Santillana.
Stefoni, Carolina(2002a), "Inmigración en Chile. Mitos que confunden", *El Metropolitano*, 2002/04/30
_____(2002b), "Mujeres inmigrantes peruanas en Chile", Papeles de Población 33, México: Universidad Autónoma del Estado de México.
Texidó, Ezequiel, et. al.(2003), *Migraciones laborales en Sudamérica: el Mercosur ampliado*, Ginebra: Oficina Internacional del Trabajo.
칠레 포탈넷, http://www.chile.com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s http://www.indec.mecon.gov.ar

논문투고일자 : 2006년 3월 2일
심사완료일자 : 2006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자 : 2006년 12월 6일

임상래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E-mail : srlim@pufs.ac.kr